

항일·불교개혁 '범란스님' 조명

교단의식 통일·국민계몽등 만해정신 계승...김경집씨 밝혀

불교학회 학술발표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지난 3일 동국대에서 제2회 추계불교학술연구발표회를 가졌다. '항일 김인덕박사 화상기림' 발간과 동시에 열린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논총에 수록된 22편의 논문중 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논의를 끈 논문은 김경집씨(동국대 강사)의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김씨는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며 불교계의 혁신을 도모했던 천재스님 범란(梵巖) 이영재(李英宰:1900~1927)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이씨는 범란의 혁신사상이 '조선불교계가 처해있는 시대적 모순을 파악, 무질서를 바로잡고 혁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단을 정비해 그 총체적 힘을 사회로 확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범란의 이같은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교헌(敎憲)의 제정과 교단내에 만해정신 갖가지 의



이영재교수



김경집씨



한중안교수

"천태종 사상확립에 부암대사 공헌" 이영재교수

식의 통일이다. 또 교단의 조직 체계는 조선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교정(敎政)에 있어서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재가자의 참여를 강조한 대중적 화합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교의 혁신도 불교를 통한 국민 계몽과 문서포교등의 제도로 나타났으며, 사회개혁은 교계의 경제적 혁신과 사회사업을 통한 중생구제등으로 제시됐다.

김씨는 '범란이 만해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대부분 이어 감으로써 1910년대의 불교혁신 운동을 1920년대로 계승했다'

홍종(始興宗)의 계파를 분석, 고려불교교단에서의 천태종의 변천사를 조명했다. 이교수는 '의천의 천태종 개종 이후 교단에서 드러난 분은 백련사 1제인 원묘로세(圓妙於世)이지만 사상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남긴 분은 운곡(雲默)스님인 부암무기'라고 밝혔다.

조선초 유·불·도 삼교에 능통했던 김시습의 불교사상을 조명한 한중안교수(원광대)는 '설각(雪峯) 김시습의 천태사상 연구'를 통해 '설각은 당시 거의 막이 끊어진 천태사상을 선사상과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사상체계를 세웠다'면서 천태사상의 핵심인 제법실상설이 설각의 <법화경발찬>에 어떻게 밝혀져 있으며, 그가 <법화경>의 해석을 통해 천태사상과 선사상을 어떻게 융합시켰는지를 조명했다.

인도 중관학파의 불호(佛護)의 연기관에 대한 청변(淸辯:490~570)의 비판을 중심으로 '청변의 연기설'을 분석한 이현옥씨(동국대 강사)는 "중관학파의 사상대립은 불교사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호호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며 "불호와 청변은 중관사상의 본질을 상이한 시각에서 꿰뚫을 수 있게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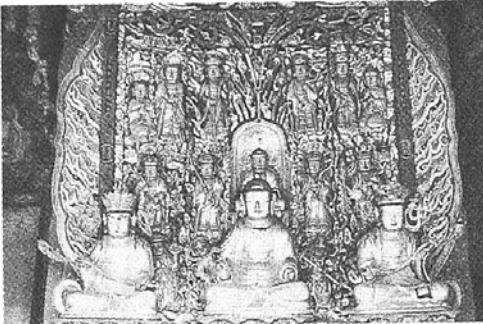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목각탱 양식 종합적 연구' 첫 논문 나와

이종문씨 발표

조선후기에 조성된 목각탱(木刻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상의 양식변천을 다룬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전북대 강사인 이종문씨가 지난달 10월28일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 제95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조선 후기 목각탱 연구'는 지금까지 상(像)의 소개와 배치, 신앙적인 성격등을 부분적으로 다뤘던 목각탱에 대한 전체적인 양식고찰과 함께 조선 후기 불화의와 비교를 시도했다.

이씨는 논문을 통해 '17~19세기에 걸쳐 조성된 목각탱은 중국·일본의 조각에서



이영재 교수의 목각탱 연구(1984년)

조선 후기 불화와 구체적 비교 시도

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불교조각품이며, 명문(銘文)이 있어 조선 후기 조각양식을 서술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각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목각탱들은 후불탱(後佛壇)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상(像)으로 조성되어 불화와 조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수용하는 특징을 가진다'며 '현존하는 7

점의 목각탱이 모두 아마타 여래를 본존불로 하는 이미 타국화상으로서 조선 후기 들어 유행했던 아마타신앙의 일면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목각탱 연구를 통해 △불상을 그린 화사(畫師)나 불상을 조각하는 조각장(匠)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고 △상을 조각한 장인이 일반서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신(水神)적 존재, 농업수호신적 존재로 신앙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미륵이 돌입석 거석(巨石)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도 미륵신앙의 농경문화와의 결합현상으로 보았다.

다년간 조사경험을 쌓은 필자들의 논문을 엮은 이 책은 △현재 각 지역사회가 안고있는 숨겨진 문화재의 발견 보고문제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향토사료관의 방향 등 향토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륵신앙 농경문화와 결합됐다"

장지훈씨 '신라미륵...'서

삼국시대 이래의 미륵신앙과 농경문화와의 결합현상을 용신(龍神)사상과 입석(立石)문화와의 관계를 통해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모았다. 장지훈씨(고려대 강사)는 지난달 28일 역사민속학회(회장 장철수) 연구발표회에서 '신라 미륵신앙의 민간신앙적 전개'란 논문을 통해 미륵신앙의 민

속신앙적 요소를 분석했다. 장씨는 "미륵신앙은 용신사상과 결합됨으로서 미륵불은

'향토사와 지역문화' 발간 문체부, 연구방향 지침서 문화체육부는 최근 향토사연구에 대한 기본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향토사와 지역문화>를 발간했다. 향토사회의 현장에서

천도제에 음식 차리는 이유는

친구의 조상 천도제에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저것 갖가지로 음식차려놓고 지냈는데 제 생각에는 저런 형식이 왜 필요할까, 그냥 조상 영가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면 족하지 않나싶어 건성으로 향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따로 음식 차리지 않고 평소 식사 때에 일체 조상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까. (차충현·대구 서구 중리동)

함께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산 세상 죽은 세상이 다 한마음이나가요.

그런데 마음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처사님 생각이지만 영가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천차만별이듯이 영가들이라고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더우기 마음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음식을 차려놓게 됩니다. 산 사람이 볼 때도 차린 게 없으면 섭섭한데 죽더라도 살던 습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차린 게 없으면 섭섭타고 야단치게 아깝니까.

나는 제사 지낼 때나 천도제 할 때에 동그런 떡 서너개하고 삼색과일 한 그릇에 초·향

이 다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한 생각 일으키면 입자가 화해서 원자, 분자가 되듯이 한 할나에 사대로 통신이 되어 밖으로 벌어지고 제각기 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구족한 상태가 절로 통신이 되고 통신이 되면 그냥 한마음인 것입니다. 마음도리를 안다면 원을 세운 그 마음은 한마음이라 바깥 경계도 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고 배기겠습니까. 늘상 말하지만 한 생각에 부모 조상의 목은 빛 같고 세세생생 자식에게 빛이 되어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상삼보에 진짜로 귀의하는 지극한 마음, 그것은 부처님과 같이 아닌 마음입니다.

장기이식때 업보도 따라오는지

요즈음 장기기증운동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점차로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불자로서 장기기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를 이식할 때 그 장기와 함께 유전적인 요인이나 업보까지도 함께 이식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진철·서울 서초구 우면동)

그러서 한 생명을 건지는 일이나 선과 (善果)중의 선과이겠지요. 유전성이나 업

지 상 삼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명(神名)에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삼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현스님께 듣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구로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만 켜놓고 지내라고 합니다.

지내는 사람도 동그런 떡 하나에 마음을 기울이고 조상님 마음도 한마음으로 다 넣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습에 얽매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지요. 동그런 떡 하나가 영가에게 첩보로 가득찬 큰 도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마음으로 등글릴 수 있다면 떡 하나로 산 세상 죽은 세상을 다 먹고도 떡 하나가 되게 됩니다. 생각을 지어내서 이치로 파고들어서는 안됩니다.

원과 기록은 어떻게 다른지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스님의 말씀 가운데 '돈을 벌어도 내가 번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부터는 월급액이나 세금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번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져 내게 이룬 돈이 생겼구나' 하며 감사하게 느끼는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해외 연수를 받고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연수를 보람 있고 효과있게 마치고 싶다는 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이 기록되는 어떻게 다른지요. (장영문·대구 중구)

한 생각 원을 세운 것과 비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는 것은 비는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처사님은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한생각 우뚝 세운 것이지요. 원래 이 마음공부가 다른 말로 하면 심성과 학이랄 수 있는데 의학·물리학·천문학... 등

보상을 염려하시는 데 눈을 기증한 사람, 콩팥을 기증한 사람이 벌써 다른 사람을 들로 보지 않았던게 아닐까요. 받는 사람도 준 사람을 들로 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기이니까 아무 일 없을겁니다. 그러나 들로 본다면 어쨌거나 인과가 됩니다.

생활속에 정진이 되는 공부방법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나 되돌아 봅니다. 제니름의 침선반편입니다. 어떻게 하든 마음공부의 정진이 되겠습니까? (최이문·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않으나 서나 지나 깨나 이걸 누가 하

는가? 그걸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하는데 작속으로 들어가는 참선이자 관법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30분쯤 그렇게 해보면 도움이 될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온갖 인연 습성에 얽혀 돌아가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통박 세상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대로 업식이라 나오면 나오는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한 생각 굴러고 되풀이 줄 모르니까 그 습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인이고 내가 주인이니 알아서 하라고 턱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놓는 것은 한생각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습에 얽매어서야 어는때 상품을 볼 것이며 해인(海印)을 얻겠습니까. 습이 습인줄도 모르기 십상이지요? 순간순간에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참나를 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김용사

요사

刹塵心念可數知 (찰진심념가수지) 大海中水可飲盡 (대해중수가음진) 虛空可量風可繫 (허공가량풍가계) 無能盡說佛功德 (무능진설불공덕)

세상 티끌 모두가 세어 알 수 있고 가없는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릴 수도 있고



권영한

부처님 공덕 인상깊게 표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도 붙잡아 딸 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만은 능히 다 말할 수 없네

요사란 절의 대중들이 함께 공양(식사)을 하거나 잠자거나 일을 하는 등의 대중적 처소로 쓰이는 집이다. 또 신도들이나 기도객이 머무르며 자고 식사하는 곳으로도 쓰인다.

김용사의 요사도 이런 대체적인 관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련의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다. 부처님의

공덕이 무엇보다 큰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단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의 가능성을 잔뜩 예로 들고난 후에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어쩌면 매우 장황한 설명에 극도로 단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주련 내용의 참맛이기도 하다. 많은 대중들이 드나드는 건물의 외벽에 이 지극히 명료한 결론으로 훈사를 주려는 의도는 쉽게 짐작이 간다. 대중들의 근기 자체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단정적인 문구로 부처님께 귀의 시키려는 의도가 아 니고 무엇이었는가. (안동 경안중 교사)

96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석사 및 연구과정

- 모집 학과 및 전공: ①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②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 모집 과정 및 인원: ① 석사학위과정: 00명 ② 연구과정: 0명
- 응시 자격: ①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② 외국에서 16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③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자
- 전형 방법: ①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석사과정 ② 서류전형 및 면접: 연구과정
- 전형 일자: 1995년 11월 16일 (목) 14:00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통(본 대학원 소정양식) ② 사진 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③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④ 대학 진학년 성적 증명서 ⑤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요) ⑥ 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1통 및 이력서 * 해외 지대 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계획 부여함

공통사항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1월 1일(수)~11월 13일(월) 평일 09:00~17:00(토·일요일은 제외)
- 전형 장소: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 전형료: 30,000원 원서대: 2,000원
- 기타 사항: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할 때는 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로 980원을 우표 및 전영료와 동봉하여 본 대학원 교학부로 보낼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 허가 취소함

관리자 과정 제11기

- 모집 인원: 000명
-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자격: ①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풍수 승려 / ② 각종단의 간부 / ③ 각 신명 단체의 간부 및 대표 / ④ 신심이 돈독한 자
- 전형 일자: 1995년 11월 17일 (금) 13:00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통(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반명함판 사진 5매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④ 주민등록 등본 1통 / ⑤ 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1통 (* 구미를 비롯한 각종 지대교와 학술 교류 및 상호방문)

☎ 11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 02) 260-3097, 3098

奉 靑潭大宗師 24週忌 追慕 大法會 案内 行

靑潭大宗師 24週忌追慕大法會를 다음과 같이 奉行함을 門徒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95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강당

문의처: 도선사 주지실 (02) 993-5002
종무소 (02) 993-3161~3

불기 2539년 11월 1일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誦寺

정담 문도회 일동 합장
도선사 주지 차동광 합장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 불교 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55-0020